집은 많은데 절이 없다



삽화 · 오영식

서울과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몰려 사는 곳이다. 한국사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지방 이전 시 인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젊은이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수도권의 중요성에도 불교계의 수도권 포교현황은 암담한 실정이다. 2000만 불자라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만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문화관광부가 2005년 발표한 종교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 2250만 여 명 중 불교인구는 373만 여 명이다. 개신교 501만 여 명, 가톨릭 301만 여 명에 비하면 상당한 열세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자칫 삼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제3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과 서울 인근의 부천 지역에서는 가톨릭과의 차이가 0.1% 밖에 나지 않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원인은 전통 사찰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가 아닌 산중이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것으로 꼽힌다. 그 결과 시민들이 쉽게 사찰을 찾아 불교를 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각 전통사찰들이 도심지역에 포교당을 건립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적인 활동에 그친 것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도심포교에 성공한 사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별 사찰만의 역량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인천·경기 서남부, 경기 북부 공동화 심각

포교역량의 미달은 지역사회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졌다. 기독교 성시화 운동과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차별 사건이 인천지역과 경기 서남권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제3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과 강화, 부천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포교를 위해서 이를 통괄하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 등이 제안한 강화 전등사 등 지역의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구 설립이 그 것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2010년 1월 '종단 교구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직할교구 분구 등 수도권 포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인천, 경기, 서울에만 2500만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등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직할교구는 총무원에서 독립해 서울의 각종 신행 행사를 주도할 필요가 있고 인천은 별도의 교구 설립, 강화와 경기 서부지역에는 관할 교구본사를 지정해 교구 전체를 조망하는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과 경기 · 인천을 통괄하는 직할교구의 경우 그 역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직할교구에는 460 여 소속 말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00여개 미만의 교구본사에 비해 세부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조직도 총무원 교직자가 소임을 겸하고 있다. 직할 교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현안 문제 해결과 교구차원의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21세기 행정구역 맞지 않는 현행 교구

인천, 경기 서남권의 불교 행정망의 공동화는 직할교구의 관할 범위와 국가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 이 같은 문제는 인천 지역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전, 광주 등도 지역불교 활동에 있어 공동화 현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 전문가들은 행정망을 갖추기 전 대안으로 전략적인 본사 급 거점 사찰을 설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도심지에 자리한 무각사에는 불교문화단체들이 결집해있어 역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월 9일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을 출범시켰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해오던 포교사단을 분할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전문기 초대단장은 "인천경기 지역은 기독교가 첫발을 디딘 지역으로 그동안 불교 포교의 거점이 부족해 상대적인 열세에 처해있었다"며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단장은 "인천경기 지역은 배출된 포교사만 300여 명에 이르는 등 인적 토대는 이미 구축된 상태로 지역 사찰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중산층 분포 지역, 특히 열세

서울 중산층이 주로 분포한 강남 3구와 양천구의 불자 수는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못미친다. 특히 개신교와 가톨릭에 이어 3위에 불과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불자수가 15.2%임에 반해 개신교는 23.5%, 가톨릭은 20.7%다. 실제로 불자들의 체감은 더욱 심각하다.

도심지가 발달한 곳일 수록 불교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이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연등의 설치를 보아도 드러난다. 시 외곽의 주요전통사찰의 지역에 끝도 없이 걸려있는 연등행렬에 비해 도심지에서 연등을 보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새로 건설된 신도시나 뉴타운에서는 더욱 더 보기 어렵다. 도시계획에 맞춘 종교부지 분양에서부터 관심부족, 자금조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신 도심지에 대형 교회와 성당이 전략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것은 신자, 특히 젊은이들의 이탈로 이어진다.

2010년 봉은사 한 법회에서 법사로 나선 스님은 "강남 지역의 3대 대형교회는 한해 예산이 수백억에 이른다 이런 대형교회들이 조직적으로 강남 거점 사찰인 봉은사세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도시화가 날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춘 불교계 대안이 시급하다. 노덕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도는 믿음에, 믿음은 진실에

몇 일 전 우연히 큰 정치인을 만났다. 그 날 따라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찌뿌듯하여 기분을 전환하고 싶은 마음에서 찻집에 들렸다. 그 정치인은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인물이지만 옛날 그가 쓴 글에서 필자는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 때 소년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그는 말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 진다"고 했고 더불어 "일야일권 독파주의"였다고도 했다. 만약 그날 밤 읽던 책을 다 읽지 못하면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니 가히 독서광임이 분명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도 이제 몸이 여의치 않아 휠체어에 의탁해 외출을 나왔던 것이다. 반가이 인사를 나누고 차 공양까지 받았다. 헤어질 때 천수를 누리라는 인사도 건넸다. 요즘 파근한 다리를 힘겨워 했는데 뒷모습을 보며 날개를 단 듯 가벼워졌다.

인간은 누구나 통증이 있다. 그 통증은 육신만 아니라 마음에도 깃들기 마련이다. 육신에 아픈 증세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다. 그러나 마음에 통증이 생기면 이내 처방 받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상대를 탓하고 주변상황이나 시대를 원망하기까지 한다. 바깥 경계가 나의 심사를 어지럽히고 산란하게 했으며 나아가 내 통증의 원인이라고 자가진단하기도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라든가 진실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믿음(信)은 Śraddhā 라고 한다. Śra는 '소리'라는 뜻을 가진 svara에서 연유된 말이다. 그리고 dhā 는 '당도하다', '도달하다'의 의미가 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란 '깨침의 소리에 당도한다'는 뜻이다. 깨침의 소리란 깨달은 사람이 설한 가르침을 말한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가르침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 가르침에 따르고 의지한다는 말이 된다. 진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thatā-tva나 tattva-artha 라고 한다. thatā 는 '그렇게', '그러한 방식'이고 tva는 '한쪽은 … 딴쪽은'의 의미가 된다. 합해 보면 '이쪽이던 저쪽이던 사물의 여여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또한 tattva는 '진리'나 '실다운 상태'를 말하고 artha는 '목적'이나 '이익'이란 말이다. '진리의 이상적인 목적'이라고 풀이함이 온당한 말이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있다. 〈화엄경〉에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元功德母)라고 했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이다.

〈선림보훈(禪林宝訓)〉 권2(대정장 48, p.1024)에서 원오극근(圜悟克勤; 1063~1135) 선사가 말했다.

"도를 배우는 일은 믿음에 달려 있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진실에 있다. 마음 속에 진실이 있어야 대중들이 의심하지 않으며,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야 솔직하게 남을 가르칠 수 있으니, 생각건대 믿음과 진실은 도움만 될 뿐 하나도 손해될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진실이 한결같지 못하면 마음을 보존할 수 없고, 믿음이 전일하지 못하면 말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옛 사람도 말하기를 "옷 입고 밥 먹는 일은 그만두더라도 믿음과 진실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원오극근 선사는 사천성 성도부 숭녕현에서 태어났다. 성은 낙(駱)씨이고 자는 무착(無着)이며 오조법연(五祖法演)의 법을 받았다. 불안(佛眼) · 불감(佛鑑)과 함께 법연문하의 삼불(三佛)이라 일컫는다. 설두중현의 송고백칙(頌古百則)을 엮어 〈벽암록〉을 만들었다.

진실이 한결같지 못하면 마음 보존 못하고 믿음이 전일하지 못하면 말을 실천 못해

요즘 언론에서는 미국 9 · 11 테러의 주범 빈 라덴이 사살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의 죽음을 놓고 얘기가 분분하다. 처음 발표는 무장 항거하여 사살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음 날에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수정했다. 독자나 청취자를 혼돈스럽게 하는 내용들이다. 진실은 간단하다. 진실은 사족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 앞에 거짓도 통용될 수 있다고 본단 말인가. 그 용인 여부는 침묵하고 있는 세계인의 몫이다. 세계인의 이성에 달려 있다. 진실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는 마력 같은 힘이 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어간다면 우화속의 얘기 같이 '진짜 늑대가 나왔다!'고 아무리 외쳐 댄들 이미 신의를 잃은 목동의 외침이 되어 공산의 메아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진실은 공산품이나 농산물 마냥 돈만 가지고 시장에 나가 쉬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누군가가 신뢰를 상실하면 이내 진실과 물물교환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진실은 꽃잎이 나부시 내려앉듯이 소리 없이 그의 온몸에 베어드는 것이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바른정법.바른인연 III

아직도 말을 붙들고, 화두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쯤 세상에 몸을 나투실겁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적 (여섯 도적)을 가시밭길과 불구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로써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믿음도 가르침도 꼭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는 그 선봉에 성직자가 당연히 실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어려운 문자나 난해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불교인양 비쳐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성에 경쟁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납골당을 짓고, 부처님 몸속 법당이니, 00신통도량이니, 00영험도량이니, 00쌀바위 도량이니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에서 부터 닦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영험 신통 도량이라니..... 또, 법당안을 들여다 보면 큰 등은 무엇이며, 작은 등은 무엇인지..... 법당이라 함은 '법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법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인등을 비롯해서 각종 등을 켜는 비용과 산으로, 바다로 방생을 한답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지순례 한다고 국내외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술비가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 **'인간방생'을 하심이 어떨는지.....** 그 베품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사찰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 짓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장회해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써의 삶을 사신 분이지, 앉아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 빠진지 오래고, 말로는 불.조사를 뛰어 넘고 있지 않는가?

이 도리를 찾고, 저 도리를 찾고, 이 뭣고? (이 무엇인고?) 말고 무엇이 있는가?

요즈음 어느 개그 프로에 나오는 유행어를 인용하자면 '그럼, 쇠는 누가 키우나?'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철주야 불러보니 부처님 말씀이 들립디까? ..... 아니면, 보입디까? ..... **우리는 불보살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 실천적인 수행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도덕.바른생활을, 또 국민윤리를 공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던가? 다만 실천하지 않기에 어려웠을 뿐이다. 그럼, 왜 말로는 실천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불합시다'. 다들 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시밭길을 걸으신지 6년만에 성불하셨다고 하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심은 물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중생의 곁에서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다 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납이, 법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통이나 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보다는 성불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함은 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답이 없다..... 앉아서 식,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원보살로써..... 실천수행자로써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증)인 것입니다.**

불.법.승.정법.실천도량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동